할 바를 알게 하고 선정 이끌어

지금 이 세계戒

① 불교인이 되는 첫걸음

2026년 새해부터 새롭게 계율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연재를 하게 된 법장입니다. 불교에서의 계율은 모든 수행의 시작이며, 불교인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이 연재를 통해 지금 이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일들 속에서 어떻게 불교적 삶을 추구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성찰을 위해 이 연재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지금 이 세계戒'를 통해 지금 이 세계에서 주인공의 삶을 살며 일상의 깨달음과 행복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사찰이나 불교용어에서 계율로 가장 많이 표현되는 것은 '보살계'일 것이다. 보살계는 보살이 중생을 구제하고 일상에서 수행을 돕는 계율의 한 종류다. 사진은 영축총림 통도사가 지난해 4월 2일부터 4일까지 봉행한 '불기 2569년 보살계 수계산림'에서 동참한 대중들이 수행정진을 다짐하며 합장하고 있는 모습.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의 문화와 모습들이 'K-컬쳐'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알려졌고, 수많은 외국 관광객이 지금도 우리나라를 찾고 있다. 'K'라는 명칭 속에는 우리나라에 관한 수많은 모습이 담겨 있지만, 그중에서도 큰 영향력과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불교'다. 실제로 우리나라를 찾는 많은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명소 중 빠지지 않는 것이 사찰과 박물관이다. 특히 국립중앙박물관 내에서도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두 분을 모셔 놓은 '사유의 방'은 언제나 긴 줄이 이어지고, 두 미륵보살의 모습을 담은 굿즈는 꼭 사고 싶은 한국의 기념품 1위에 올라 있을 정도다. 이처럼 지금 이 세계는 'K-컬쳐'가 문화를 선도하고 있고 그 중심에 우리 불교가 기둥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에 2026년의 시작인 이 시점에서 다시금 불교에 대해 생각하고, 무엇이 불교이고, 어떤 것이 불교적인가에 대한 성찰이 절실히 필요하다. 불교를 알고 배우기 위해서는 그 근본을 알아야 한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불도 수행에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 세 가지를 말씀하신 것이 '삼학(三學)'이다. 계(戒)·정(定)·혜(慧)의 세 가지를 순서에 따라 배우고 익혀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그 첫 번째인 '계'는 불교인으로서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바르게 알고 그것의 실천을 통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계행의 삶을 살면 자연스레 자신이 할 바를 알게 되어 그것에 집중된 선정의 '정'을 얻게 된다. 그리고 계와 정을 바르게 실천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인 '혜'로서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연재를 통해 우리는 불교의 첫걸음이며 그 토대인 '계'를 바르게 알고, 지금 이 세계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를 함께 이야기하겠다. 그런 이유에서 제목을 '지금 이 세계戒'라고 한 것이다.

우리가 흔히 '계율'이라 하는 것은, 수계하고 지니며 무언가를 불교적으로 판단할 때 사용한다. 그러나 정작 '계율'이란 표현은 훗날 생겨난 합성어다. 즉, 원래 계율이라는 단어가 없었다는 말이다. 불교가 인도에서 형성되어 중국으로 전래되는 과정에서 불교용어가 한역화되고, 그 속에서 본래 따로 존재하던 범어 'śīla'의 '계(戒)'와 'vinaya'의 '율(律)'이 하나로 합쳐져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계율(戒律)'이라는 표현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계율이란 한 단어로 된 산스크리트어나 빨리어의 원어가 존재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계율이라고 할 때 율장이나 보살계를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불살계'와 같은 계의 조목을 가리키는 건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사찰이나 불교용어에서 계율이라 할 때 가장 많이 표현되는 것은 아마도 '보살계'일 것이다. 보살계란 대승불교의 수행자인 보살이 세상을 살아가며 중생을 괴로움으로부터 구제해 주고, 일상에서 계행을 유지하며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계율의 한 종류다. 그렇기에 보살계는 엄격한 기준과 처벌보다는 유연함과 참회의 반성을 보다 중요시하는데, 일반 사회의 도덕이나 윤리가 바로 보살계의 그것과 비슷하다. 그러나

계율, 불교 전래 시 생긴 합성어
사찰서 보살계 가장 많이 가리켜

보살계는 유연함 · 참회 반성 중시
율은 승가 수행 위한 엄격한 계율

계율, 금지 아닌 '해야 한다' 설명 多
보살계, 일상 속 보살 마음 이끌어

도덕과 윤리적으로 어떤 행동을 행하지 않거나 사람에게 함부로 한다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듯, 보살계에서도 그것을 어기거나 함부로 하면 마음에 업이 생겨나 그 수행자의 깨달음을 방해한다고 여긴다. 불교에서 업은 무엇보다 경계해야 하는 것으로 업에 의해 윤회하고 고해 속에서 여러 일들을 겪게 되는 원인이기에 보살계의 계행은 어쩌면 율장의 그것보다 훨씬 무겁고 무서운 것일지도 모른다.

보살계와 달리 율의 경우, 경(經)·율(律)·론(論) '삼장(三藏)'의 율장만을 가리킨다. 율장은 '구족계(具足戒)'라고도 하여, 출가자가 비구·비구니가 될 때 반드시 받아야 하는 출가의 계율이다. 즉, 율장은 출가자가 승가에서 수행 생활을 하기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하고 지켜야 하는 엄격한 규율로서, 사회의 헌법과도 같은 것이다. 사회에서 살며 법을 어기면 그에 따른 처벌이나 규제가 따르듯, 율장도 출가자가 불교와 승가에서 금지한 것들을 저질렀을 경우 그에 따른 처벌을 율장의 규정에 따라 받아야만 하며, 가장 무거운 처벌의 경우 출가자의 신분을 잃고 승가에서 추방당하게 된다.

이러한 보살계와 율장의 차이는 두 계율이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는 가장 중요한 네 가지의 계율에서도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불교의 계율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계율이 바로 '살(殺)·도(盜)·음(淫)·망(妄)'이다.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순서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계율하면 살도음망이 근본이고 그대로 살도음망이 아닌가?'라고 여길 수 있다.

그러나 이 '살도음망'의 순서는 보살계에만 해당된다. 순서상 첫 번째에 있는 계목을 보면 알 수 있다. 처음의 '살'은 '불살생(不殺生)'을 가리키는데, 생명을 죽이거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대승불교의 보살이 지녀야 하는 첫 번째 덕목은 '자비(慈悲)'다. 중생을 가엾이 여기는 '대비심(大悲心)'과 중생을 이끌어 깨닫게 하겠다는 '대자심(大慈心)'이 합쳐져 '대자대비'가 되고 그것을 줄여 '자비'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보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존중이며 중생에 대한 마음이다. 그래서 보살에게 있어 당연히 살생은 가장 해서는 안 되는 무거운 죄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계율이 되는 것이기에, 보살계의 첫 번째에 불살생계가 있는 것이다.

그럼 율장은 무엇이 다른가? 율장은 출가자를 위한 계율이다. 출가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출가(出家)'다. 세속에서의 인연을 끊고 새로운 혈연을 만들지 않으며, 법을 닦고 법의 인연만을 쌓아 수행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출가자다. 그렇기에 출가자에서 가장 중요한 계율은 '불음계(不淫戒)'다. 그래서 율장의 순서는 보살계와 달리 '음·도·살·망'이다. 모든 음행을 끊는 것이야말로 출가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출가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반면 같은 '음'에 대한 계율이 보살계에서는 재가자에 한해 '사음계(邪淫戒)'라고 하여 삿된 음행, 바로 바람을 피우거나 음행을 가벼이 저지르는 것을 금지시킨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것이다. 출가자에게 살생은 저질러도 되는 것인가? 율장에서 불살생계가 세 번째에 있는 이유는 출가할 정도의 사람의 인품에는 생명을 함부로 대하거나 죽이는 일이 기본적으로 없다는 것이 전제돼, 율장에서는 불살생계가 '불투도계(不偷盜戒)'의 다음에 있는 것이다(투도계에 관한 내용에도 흥미로운 내용이 많으니 이후 소개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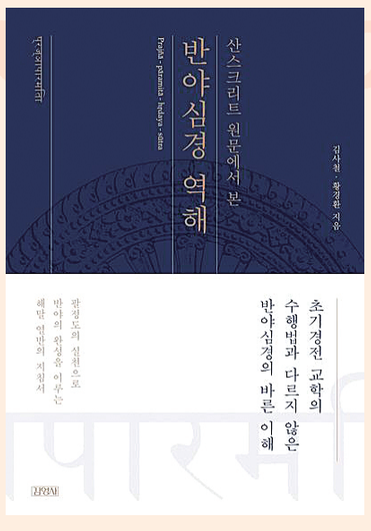
이처럼 불교를 신앙하고 배웠다고 하더라도 의외로 계율에 대해서는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아마도 계율이 지닌 무겁고 딱딱한 이미지 때문일 것이다. 대부분이 '~을 하지 말라'로 소개되는 계율이 불자들에게 현대인들에게 쉽게 다가가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사실 계율은 '하지 말라'로 소개된 것보다 '해야 한다'로 소개된 것이 많다. 특히 보살계의 경우 모두가 보살의 마음을 갖고 일상에서 실천하도록 만든 것이기에 많은 내용에서 '해야 한다'는 설명이 많고, 그 실천을 통해 업을 소멸하고 공덕을 쌓아 다른 사람들과 화합하고 회향하도록 이끌고 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세계戒'를 통해 보살계의 내용을 바르게 전하고, 그를 통해 지금 이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벌어지는 여러 일들을 불교적으로 살펴보고 함께 바른 불교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을 이제 시작하려 한다. '세 살 먹은 아이도 알지만, 팔십 먹은 노인도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불교'라는 도림 선사의 말과 같이, 오늘부터 앎과 지식이 아닌, 실천과 지혜로 불교를 접하고 바른 보살의 삶을 살아가는 2026년 한 해가 되길 발원한다.



법장 스님
조계종 교육아사리

초기 경전의 교학 이론과 수행법을 통하여 '공'과 '지혜'의 의미를 새롭게 밝힌다



산스크리트 원문에서 본
반야심경 역해

초기경전 교학의 수행법과 다르지 않은 반야심경의 바른 이해

광정도의 실천으로 반야의 완성을 이루는 해탈 열반의 지침서

김사철·황경환 지음

산스크리트 원문에서 본
반야심경 역해

이번에 김영사에서 1판 5쇄로 출판(2025.11.26)된 『산스크리트 원문에서 본 반야심경 역해』(저자 김사철, 황경환)는 서기 649년에 중국의 현장 스님께서 자국의 언어인 한문 260자로 번역한 이후 1300여년 넘게 우리나라에 전승 되어온 내용을, 17자를 빼고 11자를 추가 삽입한 254자로 수정 보완하여 출간되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수정보완판에 대하여(14쪽~19쪽)]에서 현장 스님 번역의 오류를 지적한 부분, 원문에 없는 내용이 첨가된 부분은 삭제, 원문에 있음에도 번역에서 결락 된 부분은 다시 번역을 추가했다는 것을 밝히면서 이번 5쇄로 출판된 본 『산스크리트 원문에서 본 반야심경 역해』를 접하는 불교학자나 불자들께서는 그 동안 반야심경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기 견해나 또는 소설을 쓰지 않았으면 하는 기대도 함께 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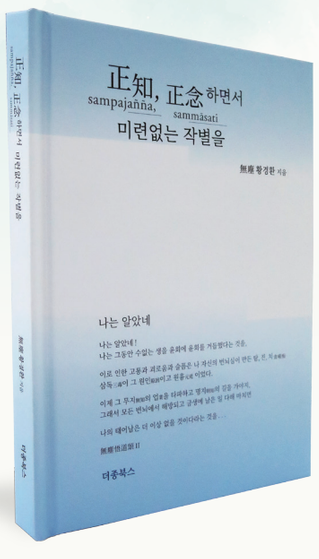
저자 無塵 황경환

김사철·황경환 지음 | 김영사 | 280쪽 | 15,800원

"《반야심경》을 초기불교 수행법에 따라 체득하겠다는 도전과 진솔한 체험이 담긴 이 책은 우리 시대의 방식으로 《반야심경》의 생명력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강성용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

황경환 21세기 불교포럼 이사장의 깨달음 여정에서 남긴 '108시집'

正知, 正念 하면서
sampajañña, sammāsati
미련없는 작별을



나는 알았네

나는 알았네!
나는 그동안 수없는 생을 윤회에 윤회를 거듭했다는 것을,
이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은 나 자신의 번뇌심이 만든
탐, 진, 치貪瞋痴 삼독三毒이
그 원인原因이고 원흉元兇이었다.
이제 그 무지無知의 업業을 타파하고 명지明知의 길을 가야지,
그래서 모든 번뇌에서 해방되고 금생에 남은 일 다해 마치면
나의 태어남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無塵悟道頌 II

無塵 황경환 지음 | 더종북스 | 175쪽 | 값 15,000원

인간의 몸을 받아
뒤돌아보고 되돌아보아도 세상이란 대도량(大道場)에 인간의 몸을 받아 왔다가 가는 길에 오직 의미 있는 일 하나, 그것은 담마의 법法 Dhamma를 만나 그 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익히고 따르고 실천하며 사는 삶이 최상의 행복이고, 미래의 비전이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 본문 중에서

· 사)21세기불교포럼 경주시 알천북로 345 | 사무국장: 최진홍 010-9210-2959, 회계과장: 임정은 010-8562-7312